‘셰익스피어의 여인들’ 사진제공 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속 여주인공들 한무대 등장 흥미로운 뮤지컬 공연

오필리아(햄릿), 포샤(베니스의 상인), 캐서린(말괄량이 길들이기), 데스데모나(오셀로), 클레오파트라(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한 무대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뮤지컬 ‘셰익스피어의 여인들’이 22일부터 서울 동숭동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작품은 찰스 조지 원작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랑학 개론. 셰익스피어 작품의 다른 여주인공들이 줄리엣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조언한다.

오직 한 남자(햄릿)만을 사랑했지만 비극적으로 삶을 마친 오필리아는 줄리엣에게 남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데스데모나는 질투가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비극을 경고한다. 주인공들이 극중에서 부르는 각각의 사랑 노래도 볼거리다.

이 작품은 극단 ‘나’의 창단 공연으로 한규용(전 상명대 교수)이 번역과 연출을 맡았다. 이정미 오은숙 이성주 이지영 홍미옥 등이 출연한다. 7월1일까지 오후 4시반 7시반. 1만5000원. 02-762-0010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

전통 연극의 매력 ‘인생은 꿈’서 맛본다

박웅-권성덕등 출연… 내달6일부터 예술의전당

‘스페인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페드로 칼데론 바르카(1600∼1681년) 원작의 연극 ‘인생은 꿈’이 7월6일부터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셰익스피어가 ‘포도송이’라면, 칼데론은 ‘포도즙’”이란 찬사를 남겼다.

이 연극은 아들이 폭군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 때문에, 갓 태어난 아들을 감옥에 가두는 바실리오 왕과 그의 아들 지그문트의 이야기를 다뤘다. 여기에 배신당한 뒤 사랑의 복수에 나서는 남장 여자 로자와, 왕의 충복으로 로자의 생부인 클로탈도의 갈등이 겹쳐진다. 98년 서울국제연극제에서 폴란드 극단에 의해 국내에 초연됐지만 국내 극단이 공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연극은 꿈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점과 진실의 모호함을 설득력있게 전달한다.

연극에서 지그문트가 강요당하는 꿈은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 바실리오는 갇혀 지내던 지그문트에게 잠드는 약을 먹여 성으로 옮긴 뒤 “너는 왕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그문트가 허황된 예언을 알고 난폭하게 행동하자 바실리오는 다시 그를 재우고 이전 상황을 꿈으로 믿게 한다. 4시간여에 이르는 원작을 2시간으로 압축했다.

스태프의 화려함도 돋보인다. ‘날 보러와요’ ‘집’ 등의 김광림(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이 연출을 맡았다.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작가인 전수천이 무대를, 중견 작곡가 이건용이 음악을 맡았다.

연극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박웅과 전 국립극단 단장 권성덕이 각각 바실리오 왕과 클로탈도로 등장한다. ‘교황청의 지하도’에서 공연한 송영근과 김광덕이 지그문트와 로자역에 캐스팅됐고 구혜진 장현성 황석정 등이 출연한다.

가벼운 연극에 식상한 연극 팬들이 모처럼 정통 연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월∼목 오후7시반, 금∼일 3시반 7시반. 1만2000∼3만원. 1588-7890 〈김갑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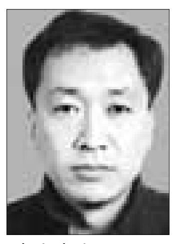
gskim@donga.com

삶의 의미를 짚은 연극 ‘인생은 꿈’. 사진제공 예술의 전당

지난달 타계한 문호근씨 ‘토월연극 시리즈’로 기획

‘인생은 꿈’ 연출에 얽힌 사연

문호근씨



김광림씨

‘인생은 꿈’은 지난달 17일 55세로 타계한 문호근 전 예술의전당 예술감독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작품. 고인은 경기고 5년 후배이자 평소 가깝게 지내는 김광림에게 직접 이 작품의 연출을 의뢰했다. 문호근은 또 이 작품과 이윤택 연출의 ‘어머니’, 결국 그의 마지막 연출작이 된 ‘교황청의 지하도’를 묶어 ‘토월연극 시리즈’를 기획한 바 있다.

18일 ‘인생의 꿈’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림은 ‘문호근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작품에 얽힌 사연을 전했다.

#연출의뢰

“연출 하나 안 할래?”(문호근)

“글쎄요, 작품이 뭔데요?”(김광림)

“인생은 꿈.”(문)

“인생은 꿈? 그게 뭐죠?”(김)

“칼데론 작품 있잖아? 대본 보낼테니까 한번 읽어봐.”(문)

#5월2일 연습을 시작한 뒤 예술의전당 로비

“어때?”(문)

“작품 좋아요.”(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한테 준 거니까 잘 만들어봐.”(문)

#‘교황청의 지하도’ 첫 공연 뒤

“(기대에 찬 눈빛으로)공연 어땠어?”(문)

“(무덤덤하게)재밌네요.”(김)

“(눈빛을 반짝이며)진짜 재밌어?”(문)

“(여전히 무덤덤하게)진짜로 재밌어요.”(김)

김광림은 “그때 좋은 작품을 준 것에 꾸벅 절했어야 했고 ‘교황청의 지하도’에 만족한다는 뜻을 확실히 전했어야 했다”면서 “감사와 칭찬, 사랑은 절대 보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분위기가 딱딱해 재미없다며 술을 권한 뒤 “형이 갑자기 가고 보니 정말 인생은 꿈 같다”고 말했다.

10주년 기념공연을 갖는 뮤지컬 ‘넌센스’. 사진제공 열기획

‘넌센스’ 10주년 드림팀 떴다

박정자-윤석화등 호화멤버 내달 17일부터 공연

뮤지컬 ‘넌센스’의 ‘드림팀’이 떴다.

박정자 윤석화 양희경 윤희정 등 공연계에서 강한 캐릭터로 소문난 배우들이 한 무대에 선다. 7월17일부터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되는 ‘넌센스’ 10주년 기념공연.

이 작품은 5명의 수녀가 식중독으로 죽은 수녀들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마련하면서 벌어지는 코믹한 에피소드를 다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4200여회 공연에 135만여 명의 관객을 기록했다.

우상민 김지숙 양금석 등의 초연 멤버 이후, 박정자 하희라 신애라 임상아 등 108명의 배우들이 이 무대를 거쳤다.

이번 무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임영웅 연출의 ‘세 자매’ 이후 2년 만에 한 무대에 서는 박정자와 윤석화의 랑데부.

중진 배우로 무대 위의 카리스마를 지닌 박정자는 근엄하면서도 속 깊은 원장 수녀 메리레지나로 등장한다. 그는 “개성과 실력이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경쟁으로 어느 때보다 활기찬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넌센스’팀에 처음 합류한 윤석화는 바깥 세상에 밝은 앤 수녀 역을 맡았다. 지난해 8월 서울연극제 개막작인 로버트 윌슨 연출의 ‘바다의 여인’에 출연한 이후 10개월 만에 무대에 선다.

이번 공연에서는 연기와 함께 예술감독도 겸해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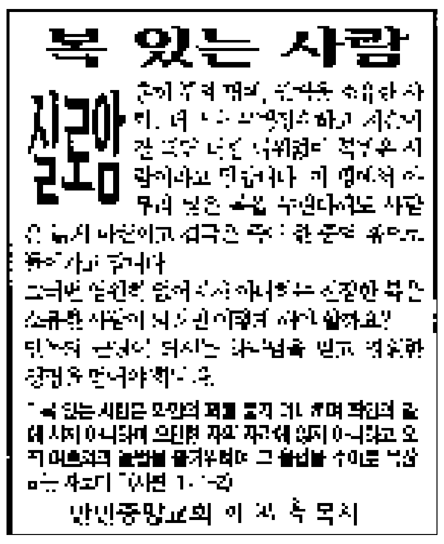
원장 자리를 넘보는 수녀원의 2인자 허버트 수녀 역을 둘러싼 대결도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재즈가수 윤희정과 탤런트이자 연극배우인 양희경이 더블 캐스팅됐다. 이밖에 강애심과 김미혜가 각각 기억을 잃은 엠네지아와, 발레리나를 꿈꾸는 메리레오 수녀로 등장한다.

9월16일까지 화목 오후 7시반, 수금토 오후4시 7시반, 일 오후3시. 2만5000∼5만5000원. 02-766-8551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

〈광 고〉



사진제공 서울예술단

가무악 ‘환생’

사물놀이에 춤과 설화가 어우러진 무대

가무악 ‘환생’ 내일 개막

사물놀이에 춤과 구전설화 등의 드라마적 요소를 결합시킨 가무악 ‘환생(還生)’이 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서울예술단’이 무대에 올리는 이번 작품은 생명의 신비, 삶의 고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철학적 화두를 춤과 타악기 연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천지개벽을 알리는 ‘서무(序舞)’에 이어 ‘탄생’ ‘삶’ ‘죽음 그리고 환생’의 3장으로 구성됐다. 무용가 국수호가 대본 연출 안무를 맡았다.

국수호는 ‘디딤무용단’의 ‘코리안 드럼-영고’를 통해 원초적 생명의 소리를 담은 북춤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북을 중심으로 아쟁과 바이올린 등 양악기와 국악기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훈령무’ ‘승무’ 등 전통 춤사위를 응용한 창작 춤이 펼쳐진다.

‘백두산’ ‘한여름 밤의 꿈’ 등을 작곡한 홍동기가 음악을, 뮤지컬 ‘심청’ ‘오로라를 위하여’의 이상봉이 조명을 맡았다.

21일 오후7시반, 22·23일 오후4시 7시반. 1만5000∼3만원. 1588-7890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

공연계 소식

‘난타’ 전용극장 1주년 이벤트

‘난타’ 제작사인 ㈜PMC는 7월1일 서울 중구 정동의 전용극장 개관 1주년을 맞아 각종 이벤트를 펼친다. 7월14일까지 ‘난타’를 본 관객 중 2명을 뽑아 9월에 시작하는 이 작품의 유럽 투어에 동반시킨다. 02-739-8288

과천 ‘사이버 마당극제’ 25일개최

과천마당극제의 ‘2001 사이버 마당극제’가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상(www.madang.or.kr)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마당극제 참가작과 관련된 자료와 시사회, 마당극 플래시 애니메이션 ‘엽기 광대’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다. 02-504-0944

최불암씨 오페라 해설자 출연

탤런트 최불암이 오페라에 해설자로 출연한다. 최씨는 27일 오후 7시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오페라 ‘오이디푸스왕’ 공연(미래악회 주최)에서 내레이션을 맡는다. 정치용 지휘, 서울시교향악단 반주로 오이디푸스 역에 김필승 등이 출연한다. 3만∼5만원. 02-7665-210